

전남 농사 안짓는 '가짜농부' 10년간 1만2735명 적발

처분의무 통지 농지 목포시 절반 크기 2392ha...전국 19.2% 차지
불법 임대 52.3% 1388ha...무단 휴경 35%·사용대차 12%

11월까지 농지 실태조사...지역 외 거주자·농업법인 소유 전수조사

무단으로 휴경하거나 불법으로 농지를 임대하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지난 10년 동안 전남에서 1만 2735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따지면 축구장(7140㎡) 3350개, 목포시의 절반 규모인 2391.7ha에서 농지법을 어겨왔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땅인지, 농지를 올바르게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는 '2021년 전국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전남에서는 총 1만2735명이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았다.

최근 10년 동안 전남지역 농지처분의무 대상자는 전국 7만9330명의 16.1%를 차지했다.

지난 2010년 전남 처분 대상자는 전국의 15.2%에 달하는 1447명을 기록한 뒤, 2011년 2554명(24.6%)→2012년 1759명(23.0%)→2013년 897명(13.9%)→2014년 1028명(16.9%)→2015년 790명(11.2%)→2016년 1084명(15.8%)→2017년 1832명(15.7%)→2018년 990명(13.7%)→2019년 354명(5.5%) 등으로 나타났다.

10년 간 적발 면적은 전국(1만2462ha)의 19.2%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6년부터는 전국 대비 비중이 줄고 있다.

전남 농지처분의무 통지 대상면적을 사유별로 보면 절반 넘게는 불법 임대를 한 경우였다.

10년 동안 농지 불법 임대 면적은 전체의 52.3%

를 차지하는 1388.4ha로 집계됐다. 농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사용대차 면적은 311.9ha로, 전체의 11.7% 비중이었다.

사유 없이 휴경한 경우는 35.1%(934ha)였으며, 위탁경영 0.4%(10.9ha), 기타 0.5%(14.5ha) 등 사유도 있었다.

정부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등 행정제재를 한다.

처분의무 통지를 내린 1년 뒤 성실하게 경작할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유예하고 3년 동안 계속 이행하게 한 뒤 그 의무를 없앤다.

반대로 성실하게 경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개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 마다 물린다.

지난 10년 동안 전남지역 처분명령은 총 950ha 면적을 대상으로, 2326명에게 내려졌다. 이행강제금은 총 193명에게 6억4500만원 가량 물려졌다. 1명당 330만원 가량이 부과된 셈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총 35명에게 4.2ha 면적에 대한 농지처분의무 통지가 내려졌다. 처분명령은 지난 2011년 단 한 건(0.1ha)이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30일까지 최근 10년 이내 관의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000ha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494ha 등 모두 25만8000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처음 전수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여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성토는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

야 하고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있으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 6067개를 전수조사한다.

축사, 버섯 재배사, 곤충 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 조치를 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한다.

올해 조사원 채용경비는 262억7900만원으로, 지난해(99억4200만원)보다 2.6배 수준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1818개 읍·면·동사무소에 2명씩 93일 간의 채용경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된 관외 거주자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상무대에 감사 한~우 곰탕 나눔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왼쪽 세번째)와 나눔축산운동본부 등은 최근 중북(21일)을 앞두고 '국군과 함께 하는 감사 한~우 곰탕 나눔' 행사를 열어 육군 군사교육시설 상무대에 무항생제 한우곰탕 3000명분(800kg 상당)을 전달했다. <전남농협 제공>

농협 전남본부, 산지유통 혁신 연합사업 전략회의

올해 매출 목표 3800억원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상반기 전남 12개 연합사업단과 5개 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이 1975억원에 달하는 매출 실적을 올렸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세운 매출 목표는 3800억원으로, 이 추세라면 순조롭게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남농협은 내다봤다.

전남농협은 지난 14일 회의실에서 전남농산물 판매 강화와 산지유통 혁신을 위한 연합사업 전략회의를 열었다.

전남 농산물 판매 주역인 시군연합사업 조직 전문 마케터 20여 명이 참석해 상반기 사업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서홍 본부장은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농협의 연합사업 조직이 책임지는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연합사업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중복 맞이 보양식 특별전 18일 광주 롯데마트 직원들이 '중복 맞이' 보양식 특별전(~21일)에 선보이는 수산물·축산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완도산 활전복과 한우, 문어, 장어, 백숙용 닭고기 등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롯데쇼핑 제공>

농촌 노인 절반, 공적 돌봄 받지 못한다

노인복지관 면 지역 평균 0.01개

농촌 노인 돌봄 시설이 도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해 농촌 노인 절반 가량은 공적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5일 충북 진천군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농촌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1년 제2차 KREI 생생현장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남훈 부연구위원은 '지역사회 중심의 농촌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발표를 통해 농촌 지역의 돌봄 현황을 소개하고 마을단위 공동체 돌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의 경우 동 지역에는 평균 0.2개소가 있지만, 면 지역에는 평균 0.01개소밖에 없으며, 중증 노인에게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동 지역에는 1.7개소가 있으나, 면 지역에는 0.5개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도 동 지역에는 11개가 있으나, 면 지역에는 평균 0.8개소만 있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역에서 돌봄조직 육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농촌 공동체 돌봄 추진 모형'을 단계별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동체 돌봄 활성화를 위한 '농촌 돌봄조직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밝히며, 활동가의 인건비 지원, 주민 역량강화 합의를 도출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제안했다.

한편 주민등록인구로 추정된 농촌의 고령화율은 올 3월 기준 23.8%로 도시(14.7%)보다 9.1%포인트 높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도초도 섬 내 시세 9억

- ▶ 임야 29,455㎡(구 8910평), 전망 좋음
- ▶ 회사 정리 차원에서 그냥 드립니다.
- ▶ 대출 1억2천만원, 사채 1억, 승계 가능자

오피스텔 매매 임대

-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8층, 계약 108㎡ 전용 67㎡
- ▶ 사무실 전용, 창가, 전망 좋음
- ▶ 매매 - 1억1000만원
- ▶ 임대 - 보 1000만원에 월 60만원

덕남동,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 임야 661㎡, 지분매매
- ▶ 매매 - 6000만원

오피스텔 신축부지

- ▶ 신안동,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 지하 1상 10층, 15평, 72개 허가특
- ▶ 법인 양도·양수 가능
- ▶ 분양/임대 100%될 장소
-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